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대 김정석 감독회장 취임

‘희망·도약·동행 -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 된 감리교회’로 나아가

지난 10월 31일(목)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에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가 제30대 감독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광림교회 연합성가대의 입례송에 맞추어 시작된 감독회장 이취임식은 이철 감독회장(제29대)과 신임 김정석 감독회장이 함께 입장했고, 이어서 각 연회 감독들과 신임 감독들이 입장했다. 본당 대예배실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축하객들은 큰 박수로 감리교회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환영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취임선서에서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회장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 후 이철 감독회장으로부터 의사봉과 스톨, 펜던트, 기독교대한감리회기를 전달받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대 감독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취임사에서 “제36회 총회에서 감리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힘은 복음에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도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를 도약케 하며, 우리를 힘 있게 함께 걸어 가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며,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감독회장 취임식을 위해 제27대 감독회장을 지낸 전용재 감독과 미연합감리교회(UMC) 정희수 감독(오하이오 연회)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미연합감리교회(UMC)로부터 새

롭게 출범한 글로벌감리교회(GMC) 대표단과 신경림 부총장(웨슬리신학대학원), CTS, CBS, GoodTV, C채널을 비롯한 각 언론사 대표와 한국월드비전 부회장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이철 감독회장의 초청에 따라 소감을 전한 박관순 사모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광림교회가 두 분의 감독회장을 배출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림교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김정석 담임목사가 감독회장에 취임하면서, 제21대 감독회장을 지낸 고(故) 김선도 감독과 함께 두 명의 감독회장을 배출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감독회장 이취임식 및 이틀간 개최된 총회를 위해 기도선교회와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는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감리교회 총회 대표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했고 교회안 내와 헌금위원으로, 임사자와 손님을 대접하

며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

이번 총회를 통해 “광림교회는 시대적 부름을 받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한국교회와 더불어 세계교회 속에 광림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말처럼 한국 장자 교회의 사명뿐 아닌, 세계 장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공부하는 곳도 아니고, 친교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3년 11월 3일 장충동의 절터인 고야사 절터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광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71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광림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광림교회는 어떤 모습과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 구원의 절대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본문 42~43절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곧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학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적이 있습니까? 다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체험했고, 증거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3~47
43.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살아있어 능력으로 바뀌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새롭게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깊이 심어질 때 인격도 언어도 생활도 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성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며, 교훈과 책망이 있어 바르게 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될 때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본문 44~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을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은혜를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필요를 살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은 공유하는 것이요, 모두의 것이요 그리고 나는 임시 청지기요,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셋째,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부터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담대한 사람과 더불어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살아있는 에너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성 학자인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그의 책인 『제네시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더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0대 감독회장 및 감독 이·취임식



희망
·
도약
·
동행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 된 감리교회



포토 뉴스



택시전도데이
남선교회총연합회는
11월 3일 창립기념주일에
택시전도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사회사업위원회 어르신 돌봄 행사
사회사업위원회는
11월 6일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 돌봄 행사를 가졌다.



교회학교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
11월 9일, 해병대2사단 청룡교회를 방문해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를 열었다.

담임목사 동정



- 10/29 케냐 목회자 방문단 면담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10/30~31 제36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제30대 감독회장 이·취임식
- 11/3 창립 71주년 기념주일
GMC 목회자 간담회
- 11/6 수요치유의 신학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뜨거운 태양, 애니깡의 슬픈 역사 메리다 지역

중남미 선교를 위한 첫 발걸음 '2024 감리회 중남미 선교사대회'와 의료선교 동시 진행

10월 말, 한국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지만 멕시코 메리다는 한국의 한여름과 같은 날씨였습니다. 낮에 섭씨 30도가 웃돌았으며 모든 것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10월 21일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메리다 센트로 65번가에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건물은 1905년 유카탄주에 첫발을 디딘 한국인들이 1909년 설립된 대한민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회관으로 쓰다가 1934년 한인 1세대가 소유한 첫 부동산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첫 이민자들의 역사와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들, 애니깡의 애환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05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멕시코행을 선택한 1,031명의 조선인이 처음으로 멕시코 유카탄주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노예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약속의 25%도 안되는 일당을

받으며 용설란 농장에서 4년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으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들, 용설란이란 스페인어(에네켄 Henequen)의 우리식 발음 '애니깡'은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조선인 여권으로는 돌아갈 곳도 없는 난민 신세가 되었지만 수박 껍질로 가져 감치를 담가 먹으면서도 독립자금을 모으고 독립군을 훈련시키며 나라를 되찾고 싶어 했던 그들의 흔적이 지금도 메리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6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인 후손들을 만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8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인천공항에서 멕시코시티까지 14시간, 그리고 또 메리다까지 2시간, 주정부의 허가를 받고 갖고 간 약품과 물품들이 세관에 잡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짐을 돌려받아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우만(UMAN)이라는 도시의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한국 의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두 시간 전부터 백 명이 넘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과, 신경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 850여 명의 환자에게 2,000여건 이상의 진료를 했으며, 한인 후손들에게는 의료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의료선교에는 청년의사와 약사 4명이 동행하며 광림의료선교위원회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명의 헤어디자이너가 동행하여 120명의 현지인에게 이 미용 봉사를 했으며, 사진 촬영, 따뜻한집과 여성교회에서 기증한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료선교의 소식을 듣고 메리다 보건국과 우만 시장 등이 방문하여 김정석 담임목사와 광림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담임목사는 한인 후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

탁하고 우만보건소와 한맥우정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2019년부터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감리회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모일 기회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멕시코, 쿠바, 도미니카, 브라질, 니카라과 등 중남미 선교사 20여 명을 메리다로 초청해 코로나 이후 첫 감리회 중남미선교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진료하고, 선교에 필요한 물품과 전도용품, 의약품 등을 전달했으며, 예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선교 이야기를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청년부

총력전도주일 기념 콘서트 워십 '소망에 대하여'



지난 10월 27일,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2024 총력전도주일을 기념하여 콘서트 워십 '소망에 대하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배는 교회와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탈피한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콘서트 워십의 주제는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다윗의 고백에서 비롯된 '소망에 대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소망을 찾도록 돕는 이번 행사는 광림교회 청년

부와 가로수길 문화선교팀 '달레트'가 주관하고, 광림아트센터가 후원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예배에 대한 소개 및 기도로 시작되었고 'OneThing Worship' 찬양팀의 찬양과 주기도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특별 초청 게스트로 출연한 찬양 유튜버 '임재배달꾼'은 찬양 특송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과 고민 상담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영광아 깨어' 등의 찬양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

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다윗과 같이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림아트센터 서정일 목사의 말씀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시편 27편, 마태복음 11장,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의미를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 후에는 OneThing Worship과 임재배달꾼이 함께 '빛을 들고 세상으로'를 찬양하며 축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했고,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새신자 환영과 선물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

트 슈퍼스타에서 활약 중인 배우 윤태호(시몬 역), 김보경(마리아 역), 김바울(가야바 역)이 출연하여 'I Don't Know How to Love Him', 'Simon Zealots', 'Amazing Grace'라는 곡으로 특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차세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새가족과 함께한 '레즈고 페스티벌'



10월 총력전도주일을 맞아 청장년부 레즈고 페스티벌이 10월 2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을 환영하고, 올해 등록한 3040 청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장년 1, 2부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찬양으로 친국 잔치의 포문을 연 이번 페스티벌은 컨벤션 A홀과 B홀에서 공간별 부스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B홀에서는 애찬과 청장카페를 열어 고깔모

자를 쓴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젤라토를 나눠주었고, 커피프린세스 팀은 맛있는 커피와 조각 케이크 등 후식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컨벤션 A홀에는 플라마켓이 열렸습니다. 육아용품과 애장품들을 기증받아 선교비로 적립한 이번 플라마켓에 여성교회와 따뜻한집을 비롯한 선한 기증자들이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040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물건을 고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눔에 사랑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봉사관 4층 A홀과 B홀 사이 로비에서는 육아와 직장생활로 인해 바빴던 청장년 성도들을 위해 특별 게스트를 초대하였습니다. 부스에서는 젊은 가정들에게 가정 생활에 대한 카운셀링을 진행했고, 김지연 성도의 바순 연주, 전지현 집사의 재즈 피아노 연주가 아름답게 울려 퍼져 참석한 가정들에 기쁨

이 되었습니다.

포토존, 풍선아트 등 성도들의 다양한 섬김은 즐길 거리로 풍성함을 더해주셨습니다. 빛이 나는 싱글 공동체, 젊은 가정공동체인 청장년부에 광림교회 3040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장년부는 매주일 12시 30분부터 사회봉사관 4층 B홀에서 애찬, 1시 30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 02-2056-5631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목회현장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고등학교 3학년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 이전

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제 삶의 전반이 변하였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내가 뜻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과 원하는 바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제가 생각했던 평탄한 길보다는 오히려 고난이나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드리면서,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을 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 제 기도 제목중에 하나가, ‘성도

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는 전부 응답해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과 저의 기도가 합쳐져도 쉽사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모두가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그대로 머무를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능력 없는 목사의 기도보다도 더 훌륭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 내 자녀의 문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내어 맡기는 믿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보다 더 간절히 원하셨던, 기도

를 하는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제야 진정으로 주교자 하셨던 선물을 공개하시는데, 그것은 ‘이삭’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9선교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가 하나님께만 아뢰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문제와 풍파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큰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의 조건들 속에서도 각자가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정우 목사(9선교구)

광림남교회

K-바운스데이

“예수님을 향해 Bounce, Bounce!”



광림남교회 교회학교는 이번 총력전도주일에 ‘K(광림)-바운스데이’라는 이름으로 새 친구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친구 초청 행사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며, 교회 밖 학교 근처 현수막에는 ‘K-바운스데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교회 주변지역에 사는 학부모님들 중 본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자녀들이 재밌어할 것 같다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 주신 덕분에 총력전도주일에 39명의 새가족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시간대별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자원하여 안전요원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에어 바이킹은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많은 친구들이 좋아했는데, 바이킹이 수동이다 보니 담당했던 유치부 선생님들께서는 어깨가 많이 아팠을 텐데도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힘을 내어 담당해 주셨습니다. 총력전도주일 내내, 쌀쌀한 가을 날씨가 무

색할 만큼 땀범벅이 될 때까지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안시현 군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더 감사했고, 준비해 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등부의 이태건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키즈카페보다 더 즐거웠다고 이야기했으며, 그중에 유치부의 성서현 어린이는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총력전도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에게 예상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림남교회 교회학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와서 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Bounce하는 공동체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Bounce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매주일마다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 갑니다.

박휘원 전도사(교육부)

광림북교회

선교바자회

마약중독자 치료를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



지난 10월 26일 토요일, 광림북교회에서는 여성교회 주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바자회에서는 각 교회별로 의류 부스, 생활용품 부스, 수공예품 부스, 먹거리 부스, 놀이 부스, 게임 부스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물품은 본당 여성교회, 교회 성도들, 나눔의 집 등에서 정성껏 기증해 주신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성도들과 이웃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덕분에 많은 후원금이 모였고, 함께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가족 단위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솜사탕과 팝콘을 나눠주는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뽑기와 풍선아트, 에어바운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수와 떡볶이,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구

경하고, 교회를 알리는 전도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 북교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 실태와 복음을 통해 마약중독자들이 회복되는 간증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공동체인 (사)소망을나누는사람들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여 중독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마약중독은 한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중독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선교바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북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가길 소망합니다.

유민재 전도사(교육부)

목회 실습 및 전도, 부흥 컨퍼런스

GMC(Global Methodist Church) 목회자 광림교회 방문



지난 10월 28일(월) 한국에 입국한 미국 GMC 목회자 20여 명이 일주일간 광림세미나하우스와 광림수도원에 머물며 광림교회의 목회철학과 실천목회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GMC 교단은 지난 9월 코스타리카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시작된 감리 교단으로 UMC(연합감리교회)의 진보적인 성향에 반대해서 나온 4,000여 교회가 속해있으며, 이 중에 한인 교회는 70여 교회가 된다. 새롭게 시작하며 목회 모델을 찾던 중 광림교회의 신학과 목회철학, 목회 실습이 GMC의 대안과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KGMN(Kwanglim Global Ministries Network)과 함께 컨퍼런스를 계획했다.

첫째 날,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광림교회의 목회철학과 역사에 대한 소개 후, 본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 2025에 참석했다. 한국 교회의 상황과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것을 나누며 한국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둘째 날부터 광림수도원, 일산광림교회 등을 방문하였고, 양화진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도 참석하였다. 본 컨퍼런스의 하이

라이트는 심방 동행이었는데, 각 선교구별 심방 동행을 통해 선교구 목회자로 목회를 배우고, 한국 성도들의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일에는 도라전망대를 방문하여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3일 주일,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광림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담임목사님과 목회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 컨퍼런스에 참여한 마이클 라비 목사는

“주일 예배는 깊은 영적 울림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본 교회에서 있었던 택시 전도와 여러 행사를 통해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것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아론 듀엘 목사는 “광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목회에 잘 적용하겠다”라며 동영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정요한·김예나 집사 부부 초청 찬양 간증 집회

총력전도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성도들과 함께 나눠



광림교회는 10월 27일 총력전도주일 저녁에 배에서 탈북음악가 정요한·김예나 집사 부부를 초청해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를 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부부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광림교회에 처음 발걸음 한 새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정요한 집사 부부는 아름다운 선율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기도문송’을 연주하며 간

증 집회의 문을 열었다. 정요한 집사는 평양음대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대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평양음대 교수와 김정일 전용악단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아내 김예나 집사도 평양음대를 졸업하고 탈북한 뒤 이화여대 음악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이다.

정 집사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4세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김정일의 특별 신임을 받

고 성장하며 동유럽 교환교수로 화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안색이 안 좋은 저를 본 한 외국인 교수의 ‘교회에 한번 가보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크게 와닿아 교회에 가게 되었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정 집사는 비밀리에 교회에 출석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말씀을 접한 후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교회 장로였던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다녔는데 할아버지는 레슨이 끝나면 저를 무릎에 앉히고 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추방당해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보니 그 기도는 성공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집사는 탈북한 뒤 한국에서 연주를 하며

우연히 탈북자 모임에서 한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되었다. 북한에서 즐겨 연주하던 ‘사향가’ 곡의 악보를 구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모임에서 만난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모두 외우고 있어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됐다고 했다.

아내 김예나 집사 가정도 순교자 목사님들 둔 집안이었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꼭 필요한 피아니스트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정요한 집사는 간증에 이어 북한에서 즐겨 연주하던 가곡 ‘사향가’와 사라사테의 바이올린 명곡 ‘지코이네르바이젠’, 찬양곡 ‘사명’을 열정적으로 연주했고 성도들은 큰 박수로 감동과 감사를 전했다.

정 집사는 ‘북한의 영혼 구원과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성도들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소현수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1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11)

태초에 이 지구는 고요와 암흑 가운데 우주로 떠다녔다. 땅도 없었고, 오직 깊은 바다의 물만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의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하였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대로 어둠 속에서 최초의 여명(黎明)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여명을 '날'이라 하였다. 그러나 밝게 빛나던 빛은 곧 사라졌고,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다. 하나님은 이것을 '밤'이라 하였다. 이 일을 마치자 하나님은 쉬었으며, 모든 날의 첫째 날은 이렇게 끝났다.

어둠의 밤은 다시 여명으로 밝아졌다. 태초의 세상에 둘째 날이 밝은 것이다.

“하늘이 있어 아래로 물을 가로지르게 하고,

바다 위로 구름과 바람이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서 바다와 구름과 바람을 창조하였다.

또다시 둘째 날이 끝나고 다음 날이 밝았다.

“물 중에 땅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하자, 아직도 물을 머금은 산들이 꼭대기를 바다 위로 솟구치더니 산이 되었다. 산 아래에는 계곡이 생기고 드넓은 대지가 생겨났다.

“땅은 씨를 품은 식물과 꽃과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들로 비옥해져라.”

하나님이 대지를 향해 말하자 드넓은 대지는 부드러운 푸른 잔디가 돌아났고, 나무들은 여러 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한 셋째 날의 모습이였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 차서 계절과 날들, 한해가 구별되게 하라. 낮은 해가 지배하지만, 밤은 휴식의 시간이 되어 고요함을 보여주도록 하라.”

넷째 날, 하나님은 아름다운 별들과 계절의 날들, 해가 낮을 밝히고 고요한 밤의 휴식을



창조하였다.

“물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가득 차게 하라.”

다섯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은 거대한 고래와 작은 물고기, 타조와 참새를 만들어 살 곳으로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그 수가 번창하여 축복받은 생명을 즐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넓은 바닷속을 헤엄쳤다. 밤이 되어 새들이 지친 머리를 날개짓 아래에 접고, 물고기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다섯째 날도 끝이 났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3)

여섯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나님은 곧 소와 호랑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짐승들 모두와 이 땅에서 사라진 여러 동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땅의 흙으로 자신을 닮은 형상을 빚어서,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은 이를 '아담'(Adam,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함)이라고 불렀다.

◀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_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The Ancient of Days)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가 천지 창조를 위해 컴퓨터로 세상을 계획하는 장면이다.

윌리엄 블레이크 작품, 워싱턴 국회도서관 소장

▲ 아담의 창조_ 하나님이 자신과 닮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안 브뤼헬 작품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천지 만물이 마음에 들었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쉬었다.

여덟 번째 날이 되자, 아담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름다운 에덴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살았다. 하지만 아담은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온순한 동물들은 그가 외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새끼들을 데리고 왔다. 하지만 아담은 행복하지 못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담과 여자는 에덴동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